

KIA, 황금장갑 '빈손'... 박찬호, 오지환에 밀려



9번째 GG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두산 양의지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양의지는 이날 수상으로 포수로 8번, 지명타자로 1번 총 9번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뉴시스**

2023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KIA 후보 7명 모두 '실패' 올해도 시상식 들러리 신세 LG 1루 오스틴 딘 최다 득표

KIA타이거즈가 2023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들러리'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 2021년에 이어 2년 만에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한 명도 배출해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

KIA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투수 양현종·이의리, 2루수 김선빈, 유격수 박찬호, 외야수 이우성·소크라테스, 지명타자 최형우 등 7명을 후보 명단에 올렸지만 모두 경쟁자에 밀려 황금장갑을 끼지 못했다.

특히 생애 첫 골든글러브에 도전했던 유격수 박찬호의 수상 실패가 아쉽다. 박찬호는 올 시즌 130경기에 나서 타율 0.301로 3홈런과 30도루, 52타점, 73득점을 생산하며 프로 데뷔 10년 만에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또 투표와 기록 점수를 합산해 선정하

는 KBO 수비상 유격수 부문에서 오지환(LG트윈스)과 공동 수상해 이번 골든글러브 수상 가능성을 기대케 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수비에 LG 트윈스를 29년 만에 통합우승으로 이끈 오지환에게 근소하게 밀렸다.

박찬호는 유효표 291표 중 120표(득표율 41.2%)를 받아 154표(52.9%)를 획득한 오지환에게 34표 차로 뒤져 생애 첫 골든글러브 수상을 다음으로 기약했다.

KIA가 올해 시상식에서 '빈손'에 그친 이유는 올해 6위의 부진한 성적을 거둔 데다 개인 성적도 경쟁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이거즈가 전신인 해태 시절부터 골든글러브를 손에 넣지 못한 것은 이번까지 모두 15번째.

'암흑기'였던 1998~2001년까지 4년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고, 2004~2005년, 2007~2008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9년, 2021년에도 황금장갑은 다른 팀 선수에게 돌아갔다.

올시즌 투수 트리플크라운(다승·탈삼진·평균자책점)을 달성하며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NC 다이노스

에릭 페디는 투수 부문 황금장갑을 손에 쥐었다.

올해 129경기 타율 0.305, 17홈런 68타점을 기록한 광주 진흥고 출신 두산 베어스 양의지는 포수 부문에서 골든글러브를 수상, 개인 통산 9번째 황금장갑(2014·2015·2016·2018·2019·2020·2021·2022·2023년)을 품었다. 특히 포수로는 개인 통산 8번째 골든글러브를 수상, 김동수(7회)를 제치고 포수 부문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내야수 부분에서는 LG의 통합 우승 주역인 외국인 1루수 오스틴 딘과 항저우 야시안게임 주장으로 금메달을 이끈 키움 히어로즈 2루수 김혜성, 울산지엔 홈런왕·타점왕에 오른 한화 이글스 3루수 노시환이 각각 골든글러브 수상에 성공했다.

특히 오스틴 딘은 유효표 291표 중 271표를 획득, 득표율 93.1%로 최다득표 수상자가 됐다.

외야수 세 자리의 주인공은 LG 흥창기, 삼성 구자욱, NC 박건우가 차지했다. 지명타자 부문 골든글러브는 데뷔 첫 타격왕과 함께 타격 2관왕(타율·최다안타)에 오른 NC 손아섭에게 돌아갔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광주체고 조정선수 4명, 靑주니어선수권 출전

14~18일 태국 라용조정경기장 김승현·김정민·서예서·김지선

광주체육고 조정부 신영금 감독과 선수 4명이 2023 아시아주니어조정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메달사냥에 나선다.

11일 대한조정협회에 따르면 오는 14~18일 태국 라용조정경기장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주니어조정선수권대회에 총 12명(지도자 3·선수 8·주무 1명)으로 구성된 조정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을 파견한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체육고 선수는 김승현·김정민·서예서(이상 2년)·김지선(1년) 등 4명이다. 이들은 모두 여자 쿼드러플스킬 종목에 출전해 호흡을 맞춘다.

김승현·김정민·서예서·김지선은 올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각종 전국대회를 휩쓸었다.

지난 10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합작했고, 지난 5월 제12회 중

주 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와 4월 제65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이 같은 우수한 성적으로 올해 국가대표 후보선수로 선발돼 지난 1~7일 충주 탄금호조정경기장에서 이번 대회를 대비한 사전훈련을 마치고 지난 8일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들 외에도 이번 대회에는 남자 쿼드러플스킬 우태희·강산(이상 인천체고 3년), 남자 싱글스킬 박지성(장성하이텍 3년)·전유찬(부산체고 2년)이 출전한다.

신영금 광주체고 감독은 여자 대표팀을 맡아 대회에 참가하고, 장현철 후보선수 전임감독과 조일근 인천체고 지도자가 남자 대표팀 지도자로 나선다.

조정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은 14~16일 예선-패자-결승 경기를, 17~18일 결승 경기 일정을 마친 뒤 20일 귀국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2023 광주시체육회장기 전국생활체육 검도대회 성료

광주국대검도관 통합단체전 우승

'유당 최상욱선생 추모기념' 2023 광주 시체육회장기 전국 생활체육 검도대회가 지난 9~10일 광주서석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 생활체육 검도 동호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나누고 검도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검도와 평생을 헌신한 유당 최상욱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70여개 도장 500여 명이 참가해 개인전 6개 부문과 단체전 6개 부문으로 나뉘어 갈고닦은 기량을 펼쳤다.

도장통합단체전 우승컵은 광주 국대검도관이, 초등부 단체전 우승은 임동력검도관이, 여자부 단체전에서는 세종TOP검도관이 1위를, 들어올렸다.

일반1부 단체전은 팀 시차A가, 일반2부(청·장년) 단체전은 국대검도관A가, 일반2부(중년) 단체전은 남약검도관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전에서는 △초등부허경도(임동력검도관) △일반1부 배형주(팀 시차) △일반2부(청·장년) 박승현(화랑검도관) △일반2부(중년부) 여신욱(인학검도관) △여자부(청·장년) 배향화(국대검도관) △여자부(중년부) 유성욱(세종TOP검도관)이 우승을 차지했다. **최동환 기자**



손흥민 페널티킥 성공 세리머니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1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시즌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후반 40분 페널티킥으로 팀의 네 번째 골을 넣고 세리머니하고 있다. 손흥민은 1골(10호) 2도움(3·4호)을 기록하며 팀의 4-1 승리를 이끌었고, 역대 7번째로 8시즌 연속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AP/뉴시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전남선수단 해단식

입상 선수·단체 시상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남선수단 해단식을 갖고 입상 선수와 단체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11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2층 비발디홀에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남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장애인체전 참가선수단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선수단은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에

서 금 50·은 83동 86개 등 총 219개의 메달과 총 17만7532점을 획득하며 종합순위 3위의 성적을 거뒀다.

이번 해단식은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동안 전남 선수단의 활약상이 담긴 영상물 상영과 성적 보고, 선수단기 반환, 종목 3위 상배 및 도약상 봉정, 각종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1~5위 입상 경기단체 19명과 시군지회 18명 등을 대표해 전남장애인골프협회 신상식 회장과 영암군장애인체육회 김보암 상임부회장이 전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적으로 수여되는 다년간 우승팀 상은 2연패를 달성한

전남장애인골볼협회, 전남장애인배구협회가 수상했다. 종합 1~3위를 거둔 종목에게 수여하는 입상단체상은 1위를 거둔 5개 종목 대표로 전남장애인농구연맹이, 2위 대표로 전남장애인축구협회가, 3위 대표로 전남장애인럭비협회가 각각 수상했다.

우수선수상은 다관왕 6명, 개인 1673점 이상 획득한 선수 9명을 대표해 육상 황상준 선수가, 우수지도자상은 종목점수 점유율 상위 10종목과 우수선수 육성지도자 5명을 대표해 사이클 강병수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력 성취상은 13개 종목을 대표해 전남장애인육상연맹이 수상했다. 미래 유망선수에게 수여하는 전남도지사 표창장은 여수충무고 정태빈(육상), 한영대학교 문지성(댄스) 선수가 받았다. **최동환 기자**